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서비스를 말한다

김영순*

1.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

어린이는 우리 인류의 일등급 자료원이다. 어린이의 교육 문제는 가정과 국가로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린이의 사회적 교육 환경은 방치 되어 있는 실정이다. 한 인간의 인격 형성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반듯한 삼각형 구도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보완할 때 완성된다는 교육 원리는 흔들림없는 진리이다. 셋 중 어느 한 기둥이 부실해도 바람직한 인격 형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교육 환경이라고 할 때 이것은 대단히 방대하고 애매 모호하다. 이에 각 지역 사회나 국가는 어린이에게 바람직한 사회 환경이 될 수 있는 제도와 시설을 고안했고 그것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게 되었다. 20세기에 가장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성과를 거둔 제도와 시설은 어린이도서관이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어린이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전문인이 지도의 책임을 지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문화 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어린이도서관 제도가 정비되어 있고 좋은 시설이 많다. 또한 미래사회문화에 대비하여 어린이도서관에 투자하고 있다. 그리하여 도서관의 양과 질은 그 나라 국민의 미래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IFLA가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서비스지침”에서 밝힌¹⁾ 어린이도서관의 기능을 보면, 1) 어린이가 자발적이고 실제적인 어른이 될 수 있는 문화적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 2) 어린이에게 인류 역사에 기초한 운문·그림·소리 및 전자자료 형태의 문화유산에서 자신의 이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한다. 3) 어린이가 적극적·창조적 인격

* 동작도서관 종합자료실 실장, 前 서울시아린이도서관 자료봉사과장

1) A. M. Fasick ed. Guidelines for children's Services. IFLA professional Reports. no. 25. Hague. IFLA. 1991. p.5-7.

으로 성장하게 격려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4) 인류의 보통 기억으로 활용하는 자료와 미래 어린이 세계에서 사용할 자료의 보존이 그 업무이다. 5) 어린이의 문화 선호 의식의 발생과 휴식 및 활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봉사한다. 6) 어린이도서관은 적절한 상황이 설정되면 국가의 전체적 도서관 제도의 한 부분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7) 물질적 공간을 편안하게 하고 현재 환경과 문화를 고려하여 어린이 개인 능력을 개발하고 다른 문화 활동을 격려하면서 독서하는 즐거운 장소가 되어야 한다. 8) 부모와 교육자에게 자문하면서 현 교육 프로그램을 완전하게 이행하도록 그 역할을 함께 관리한다. 이상과 같이 IFLA가 제시한 제안들은 공공도서관에서의 어린이서비스의 보편적인 본질을 명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어린이도서관의 필요성과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야 할 모습을 그려낸다.

2.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도서관의 서비스 현황

어린이도서관 서비스는 어린이에게 책과 도서관을 소개하고 독서의 즐거움을 알려 주고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사람과 세상을 이해하고 문화사회를 통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풍부한 교육적 경험을 조성해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은 1979년 '세계의 어린이 해'를 기념하여 설립된 어린이전용도서관으로 인왕산 자락의 사직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자료관은 국내에서 출판되는 어린이와 관련된 도서 및 잡지, 비도서, 전자자료 등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 학생을 위한 19만권의 자료를 소장하고 있다.

제1자료실과 제2자료실에는 어린이를 위한 단행본 자료와 신문 정기간행물을 비치하고 있으며 유아실에는 유아를 위한 단행본과 정기간행물을 비치하고, 세대당 도서 6권 비도서 2점을 2주간 대출해 주고 있다.

1일독서교실은 서울시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서관 이용안내 도서선택법 독서위생 등에 대해 연중으로 실시하여 도서관 생활화에 기여 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동화구연대회, 독서감상화그리기대회, 글짓기대회, 독서감상문쓰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관은 전시실·독서상담실·이야기실·어린이문화교실·디지털자료실로 어린이에게 잠재되어 있는 사고력과 창의적인 표현의 기회, 독서 동기 유발을 위한 이야기듣기 등 어린이의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서상담실을 통해 어린이 독서지도와 독서교육을, 재미술술 이야기 시간에는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그림책 읽어주기를 내용으로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5회(월-금 15:00 - 16:00) 실시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문화교실로는 종이접기교실, 유아동화구연교실, 글짓기교실, 책만들기교실, 어린이영어동화구연교실 등 자기체험을 바탕으로 어린이의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어머니들을 위한 문화교실로는 가정독서지도교실, 부모역할교실, 서예교실, 교사동화구연교실등 가정에서의 어린이 독서지도 방법과 올바른 부모역할을 위한 지도를 하고 있다.

4월 도서관주간과 9월 독서의 달에는 어린이

를 위한 동극과 초등학교 어린이회장을 대상으로 어린이독서운동교실, 교양강좌, 어머니독서세미나 등의 문화행사로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증가 시킨다.

순회문고 운영으로 도서관과 거리가 먼 취약 지역의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료를 일정기간(2개월간 200권) 대출하여 줌으로써 직접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시청각실에서는 매주 토, 일요일에 역사, 과학, 동화에 관한 다양한 영상물을 상영하여 시청각 자료를 통한 독서흥미와 능력을 길러준다.

어린이 독서교육의 현실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할과 독서체험, 문화활동, 독서환경조성, 독서지도 등 독서내용을 토대로 한 『어린이와 독서』라는 독서교육자료를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각 초등학교에 배포하여 독서교육에 도움을 주고 있다.

3. 어린이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의 자료와 연간 이용자와 이용책 수 면에서는 다른 공공도서관 아동실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

우선 장서면에서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은 자료구입 예산 전액을 어린이도서를 구입(연간 6,000여종 출판되는 어린이도서 중 5,000여종을 구입 약 90%이상 구입에 쓰는데 불량만화나 도서를 빼고는 거의 구입)하는데 비해 공공도서관아동실은 자료구입 예산의 10-20%를 구입하게 됨으로 다양한 책과 복권 구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도서 구입 예산 분배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시설면으로 보면 현재 서울특별시립어린이도서관은 1979년에 시립아동병원을 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으로 자료실은 공공도서관 아동실에 비해 좌석과 공간은 넓은 편이나 학교처럼 분위기가 딱딱한 편이다. 어린이가 쉽고 효과 있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 배치와 조명시설에 신경을 써서 어린이들 위주의 부드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알맞은 온도, 쾌적한 환경이 필요하다.

문화교실프로그램으로 보면 지나치게 독서와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내용이나 형식 참가대상이 획일적이며 다소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다. 공공도서관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다양한 자료와 문화를 제공하면서 그것의 경험을 돕기 위한 공간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이 속에는 어린이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도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러 여건(공간, 인력)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한계를 느낀다. 외국의 예를 보면 예술이나 고고학 또는 천문학 이런 주제의 프로그램은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로 함께 참여하는데 비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자원봉사 인식의 차이도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인력면으로는 어린이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아동실 담당자들이 어린이전문사서가 아니라는 점과 잦은 인사로 전문성을 갖출 수 없다는 점들을 들 수 있다. 이에 어린이실 담당자들이 하나의 조직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활동하는 방안을 강구해 각 주제별 어린이도서와 문화프로그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린이독서교육과 어린이도서관 발전에 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